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이용 가능해진다

오픈뱅킹 12월 전면 시행...이용 수수료 40~50원 될 듯 실무협의회, 10월부터 테스트·24시간 대응체계 마련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의 논의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

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의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결제 수수료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의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



비하기로 했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중구 금융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픈뱅킹 정착을 위해 혁신 서비스 개발,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사전 준비, 보안 수준·점검 강화, 지속적인 보완과 유연한 운영 등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를 포함해 금융결제원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42.88 (+9.43)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3)
↓ 코스닥 766.75 (-1.10)	↓ 환율 (USD) 1133.10 (-6.30)



광주은행, 지역경제 활성화 앞장

광주상생카드 6억원 구매

이제 이용습 광주광역시장은 15일 오전 송중옥 광주은행장과 장용관 광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계자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초청해 광주상생카드 구매에 대한 감사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중옥 광주은행장은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이번 '광주상생카드 사용하기 운동'은 광주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상생카드 사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광주시민과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홍보 및 판매에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옥)은 광주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광주상생카드의 조기 보급 조성을 위해 '광주상생카드 사용하기 운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상생카드 출시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광주은행 전 임직원은 지역민과 상생하겠다는 뜻을 모아 '광주상생카드 사용하기 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는 등 총 6억 6백만원의 광주상생카드를 구매했다.

농협 광주본부, 경영성과 평가 '최우수'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2018년 전국농협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지역본부로 선정돼 최근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농협중앙회 회장으로 부터 경영성과 우수기 수여와 우수 경영자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농협인의 다양한 실증증진 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향상과 지역농협의 지속적인 성장, 농축산물 판매 증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2018년 전국 최우수 평가를 수상한 바 있다.

김일수 광주본부장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인 실익지원을 위한 전 임직원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며 "2019년도에도 조직의 모든 역량을 다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익산국토청, 건설현장 점검 불량자재 사용 뿌리뽑는다

익산국토청이 건설 현장의 불량자재 사용을 뿌리뽑기 위해 지역 레미콘·아스콘 생산 공장에 대해 연중 점검에 나선다.

15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철홍)에 따르면 16일부터 26일까지 건설현장의 주요 자재인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상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익산국토청이 사공 중인 공사 현장에 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업체 중 일정 규모(레미콘 3000㎥, 아스콘 5000t) 이상 공장 1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재료 혼합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자재관리의 품질관리, 설비관리 실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등 외부 기관 관계자도 참여한다.

점검 결과 단순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토록 유도하고, 불량자재 사용 등 중대 사항 적발에 대해서는 공급원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이어 연말까지 매월 8~11개 업체를 선정해 지속해서 현장에 소량의 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감리 및 시공사에서 자체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수출기업 러시아 시장 뚫었다

무역협회 첫 시장개척단 파견 13개사 5635만달러 수출 실적

한국무역협회와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파견한 러시아시장개척단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8일동안 블라디미르 3개 주요 도시를 돌며 현장에서 22건 398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상담과 계약추진까지 합하면 5635만 달러에 달한다.

전남도는 이번에 수출협약을 체결한 바이어들을 연말에 전남으로 초청, 수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에 따르면 전남지역 수출업체 13개사(식품업체 7, 화장품 2, 산업재 4개사)를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러시아에 파견, 블라디보스톡·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등 3개 도시에서 수출상담 활동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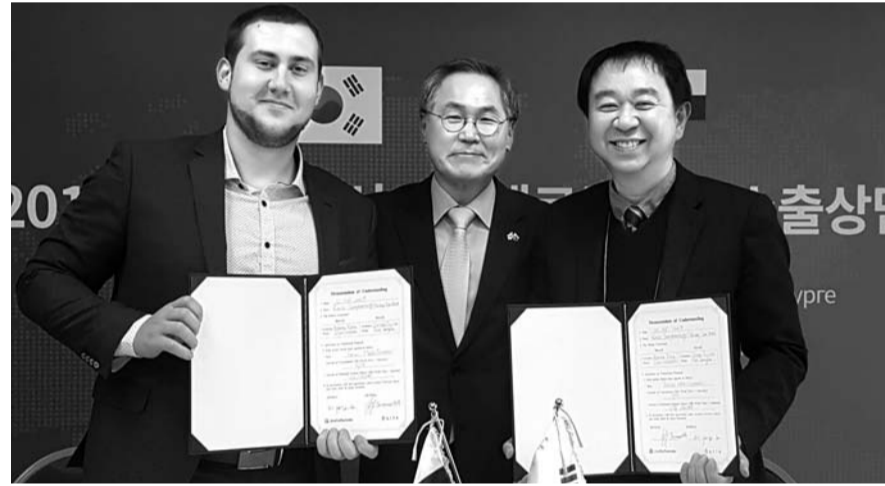
시장개척단 활동 결과, 상담회 현장 수출협약(MOU) 체결 22건 398만달러를 비롯해 수출상담액 3804만달러, 계약추진 예정액 1433만달러 등 총 5635만달러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수출상담회장을 찾아 러시아 고객들에게 큰 신뢰감을 줬다.

방역기기를 수출하는 '벡터네이트크리아'는 상세한 제품설명을 통해 방역기 100대(2만8141달러)를 현장 판매하는 등 러시아 고객의 주목을 받았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광양의 농업회사법인 '이에스바이오㈜'는 모스크바 소재 휴메이트사카린 그룹에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총 4건 185만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이 회사 강기연 대표는 "산성화된 러시아 토양을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도록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장성의 '쥬명품(대표 박관수)은 기초화장품 3종 세트를 2건 60만달러를, 순천 '쥬마린테크노'(대표 황재호)는 마스크팩과 건강식품 등 4건 40만달러를 수출하기로 약속을 했다.

'지리산과하나되기'는 초코스타·마스크팩을 러시아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화장품업체 '지리산과하나되기'가 러시아 유통업체와 초코스타·마스크팩 수출협약을 맺은 뒤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팩을 러시아 유통업체(3건 35만달러)에 수출하기로 했으며, 여수의 '쥬아리움(대표 김미선)은 크리피 스펙 제품을 러시아 시장에 최초로 선보여 3개 바이어와 3건 32만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보성의 농업회사법인 '살리고(대표 조규택)는 유기농 녹차를 이용, 차를 좋아하는 러시아 바이어들을 집중 공략해 3개 바이어와 18만달러의 MOU를 체결했다.

나주 농업회사법인 '에버팜(대표 이나미)은 배·딸기·포도·키위 등 10만달러 수출 MOU를 체결, 신선과일 수출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러시아 시장에 최초로 수출하게 될 전망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